

국토이슈리포트

제 12 호

2020년 1월 22일

| 발행처 | 국토연구원 www.krihs.re.kr | 발행인 | 강현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과 우리나라 도시개발 협력방안

요약

■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배로 건설된 수도 이외에 국가적 정체성과 통일성을 대표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희망

- 1957~1958년 인도네시아 수카르노(Sukarno) 전 대통령에 의해 수도 이전 관련 아이디어가 제기됐으며, 이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현 대통령의 성명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재진전

■ 다양한 도시·환경 문제 등으로 수도 이전 필요성 대두

- 인도네시아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Jakarta)의 과밀화로 인한 도시문제 및 지반 침하, 해수면 상승, 지진, 화산활동, 잦은 홍수 피해 발생 등으로 인해 수도 이전 필요

■ 2019년 5월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우리나라와 협력 의사를 표시

- 한국은 신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 전수 입장 표명

■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 자금조달계획을 위한 제도 개편 등 제언

- 목표인구와 건설규모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안) 및 국가수도개발청 설립(안) 제시
-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민간투자가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의 주요 재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 신행정수도 이전 경험의 활용과 협력체계 마련 필요

- 한국의 각종 도시개발과 행정수도 이전 경험을 공유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ASCN (ASEAN Smart Cities Network, 아세안 스마트도시 네트워크) 등 신남방정책 연계와 공동으로 다자개발은행의 자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협력체계 구축

이범현 연구위원
강건국 연구원
김유란 연구원

1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인도네시아 현수도 자카르타의 역사와 수도 이전 담론 제기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식민지배를 받을 당시 바타비아(Batavia)로 불렸던 자카르타는 네덜란드에 의해 농산품 및 향신료 등을 거래하기 위한 항구도시로 개발

📍 자카르타 개발은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로 시작된 것으로, 바타비아라는 명칭은 네덜란드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인도네시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담론이 제기됨(BAPPENAS* 2019)

* BAPPENAS(Bad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국가개발기획부)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개발·계획 분야에 정부문제를 감독하여 대통령이 주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사역

📍 국가·지역 토속성을 표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국가 정체성과 통일성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도 건설 희망

📍 수카르노(Sukarno, 1901~1970)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은 1957~1958년 사이 이미 자카르타에서 팔랑카 라야(Palangka Raya)로 수도를 이전하는 아이디어를 제기했으며, 수도 이전 아이디어는 현재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성명(2017)에 의해 다시 진전(Septiana and Sumarlam 2018)

수도인 자카르타 과밀화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

자카르타 및 자카르타 수도권 영역이 포함된 자바섬(Java Island)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도시문제 발생

📍 수도권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에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56.56%인 1억 4,500만 명 가량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 자카르타는 세계 9위의 인구과밀 도시

📍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무역, 경제, 기업, 행정·국방, 교육, 제조산업 등 전방위적인 영역의 중심이 되었으며, 이러한 집중 현상은 도심의 높은 혼잡도와 대기질 불량 현상을 야기(BAPPENAS 2019)

📍 자카르타 및 수도권 영역은 전체 면적 대비 도로 인프라율이 6.2%로 이상적 수치인 15%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이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 발생(출퇴근 평균 편도 2~3시간, 왕복 4~5시간 이상 소요)

📍 높은 혼잡도는 대기질 오염의 원인이 되어 2013년 연간 약 40억 달러(약 4조 7천억 원), 2017년 연간 약 46억 3천만 달러(약 5조 4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BAPPENAS 2019)

〈그림 1〉 인도네시아 인구밀도 분포도



출처: <https://www.bps.go.id/linkTableDinamis/view/id/842> (2020년2월 14일 검색)의 통계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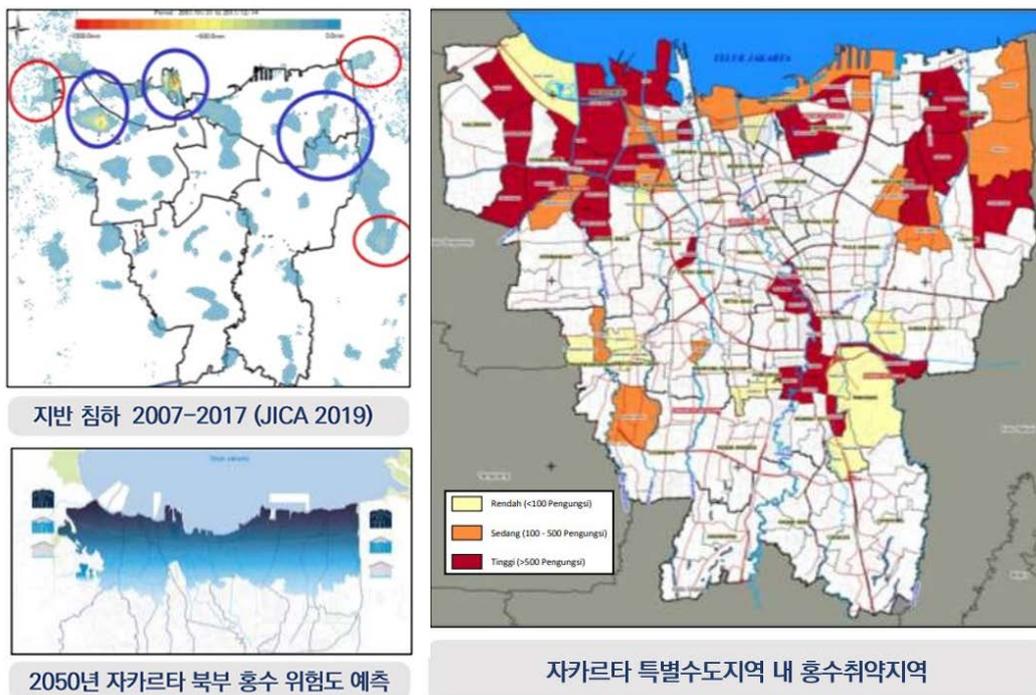
잡은 홍수 피해와 지반 침하 및 해수면 상승 등 불안요소 고조 심화

자카르타 지역의 약 50%가 설계홍수량* 10년 빈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며, 지하수 수위 감소로 인한 지반 침하 및 해수면 상승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

* 홍수로 인한 재해를 막기 위한 댐과 저수지 제방, 하천의 독 또는 구조물의 설계에 기준으로 삼을 유량

- 📍 자카르타의 홍수 피해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지반 침하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 대비가 쉽지 않은 실정
- 📍 자카르타는 홍수 피해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대한 가루다의 날개’(Wings of Great Garuda)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 항구를 둘러싼 거대한 항만연장계획은 환경적·사회적 반대를 고려하면 시행이 어려운 실정(Priyambodho, Qin and Ravesteijn 2015)
- 📍 특히 60% 수준에 그치는 상수도 공급 제한은 자카르타 주민 40%가 수원 공급방법으로 우물을 사용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한 연평균 7.5~10cm에 이르는 지하수 수위 감소를 통해 현재까지 약 35~50cm 정도의 지반 침하가 발생함
- 📍 또한 해수면은 2050년까지 -50~25cm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어 2050년에는 자카르타 전역이 해수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
- 📍 자카르타와 수도권 영역은 화산활동으로 인한 지진 위협까지 받고 있으며, 쓰나미 위협이 상존
- 📍 자카르타는 바리비스(Baribis), 렘방(Lembang), 씨만디리(Cimandiri) 단층의 영향권에 있어 홍수 및 지진의 피해에 취약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그림 2〉 자카르타 홍수 영향권 및 취약지역



출처: BAPPENAS 2019.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 시행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까지 총 406억 달러(약 47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 개선, 교통 관리, 하수처리·쓰레기 관리, 홍수 및 물 공급시스템 등을 정비(BAPPENAS 2019)

- ④ 정부는 DKI(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자카르타 특별수도지역) 주민 대상 100% 정수 공급을 목표로 사업 추진
- ④ 또한 고가철로 개발, LRT(Light Rail Transit, 고속 노면전차) 개발, 국도 연장, 전자 도로 요금제 운영 등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투자
- ④ 자카르타 수도 주민의 81%까지 폐수네트워크 범위로 확대하고 네 지점에 중간처리시설을 도입하는 폐기물 관리시스템 도입
- ④ 자카르타 항만에 안벽 3,338m를 건설, 저수지 28개소 건설, 하천 13개소의 자연화·정상화 등을 통한 홍수 및 물 공급 관리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하는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다방면 노력 시행

2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의 현황과 시사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재선 성공(2019년 5월)

2기 내각의 핵심 정책과제로 수도 이전(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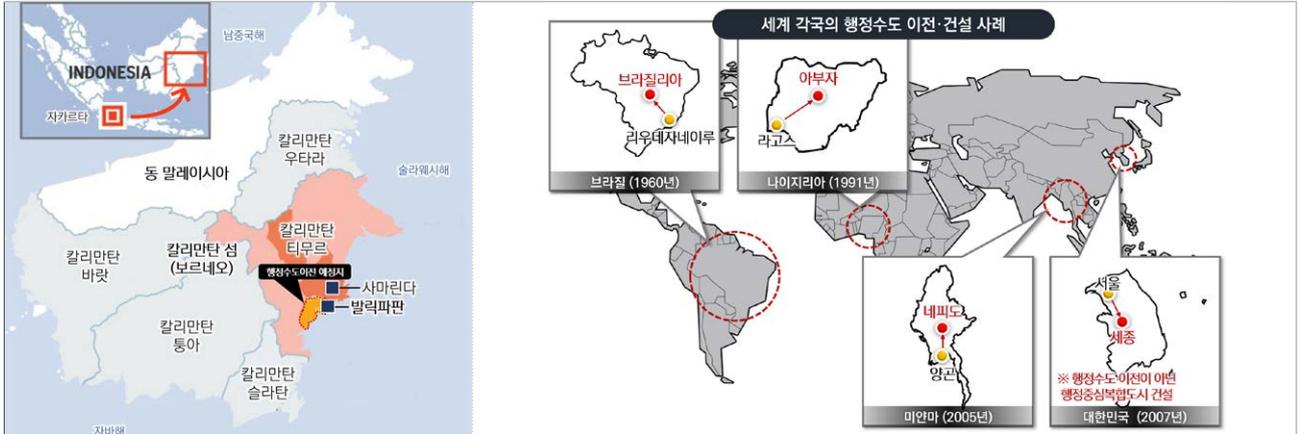
- ④ 추진 경위
 - (2019년 5월)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 연임(야당과 11% 차이)
 - (2019년 5월) 수도 이전 후보지역 등에 대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직접 답사 및 검토
 - (2019년 8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통해 의회 승인(지원) 요청(8월 16일), 수도 이전 입지(동부 칼라만탄주(궐) 해안지역) 공식 발표(8월 26일)
 - *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Sukarno, 1957) 및 수하르토 대통령(Soeharto, 1967~1998) 집권기 등 과거 정부에서도 수차례 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무산됨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신남방 협조의사 표명

신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하고 싶다는 의사 표명

- ④ 도시·주택 개발 분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관련 우수사례 강조
 - 세종시는 총사업비 22조 5천억 원(국비 8조 5천억 원, LH 14조)을 투입해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 유치 목표(1단계 정부기관 이전 완료, 2단계 도시 자족기능 유치 중)
- ④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식(2019년 10월 20일)에 정부 관련 고위인사 파견 및 친서 전달
 - 국방, 전기자동차, 수도 이전 3대 분야 관련 한국 측 지원가능의사 전달예정(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내부자료)

〈그림 3〉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현황(좌) 및 신행정수도 이전 사례(우)



출처: 저자 작성.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전략과 실행계획

세 가지 기본 콘셉트 및 단계별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전략 수립

- 📍 기본 콘셉트는 ① 통합된 국가 정체성 확립, ②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③ 국제 표준에 따른 스마트한 도시로 나뉨
- 📍 마스터플랜은 ① 1단계 → 국내 아이디어 공모전(2019년 10~12월), ② 2단계 → 국제 입찰 공모(2020년 1~3월 예정)로 수립
- 📍 연도별 수도 이전 실행계획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내부자료.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한국의 협력 가능성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건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언급

-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으로 부산을 방문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본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연합뉴스 2019)
- 📍 수하르소(Suharso)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상원 제1상임위와 수도 이전 관련 논의를 진행(2019년 11월 20일)했으며, 마루프 아민(Maruf Amin) 부통령은 내년 초 하원과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

- 📍 토지 기반 사업 시기도 2020년 초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신수도 이름을 공모 중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 관련 옴니버스법*을 하원에 제출한 상태로, 2019년 12월 설치된 컨트롤타워 기관에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 * 다양한 문제 또는 주제를 다루는 규정 또는 법
- 📍 지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국토교통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 간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계획과 관련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국제신문 2020)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이전 사업의 현황¹⁾

신행정수도 건설 시, 자카르타는 경제·금융 중심지로 유지

- 📍 수도 이전 입지지역은 칼리만탄(Kalimantan)주의 발릭파판(Balikpapan) 외곽이며, 2020년까지 입법, 마스터플랜 수립, 2021년 착공 추진, 2024년부터 정부 이전을 개시 목표로 함(1단계 600만 평 개발)
- 📍 건설규모는 약 400km²(1억 2천만 평)이며, 공무원 20여만 명을 포함하여 인구 150만 명을 목표로 친환경·미래도시 건설을 지향함
- 📍 건설비용은 약 39조 원으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재정 6조 2천억 원, 민·관 협력 22조 2천억 원, 민간 10조 6천억 원으로 발표(2019년 7월)
 - 전체 사업비 중 약 15.9%만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고, 기타 재원은 민·관 협력 및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조달 예정
 - 토지보상비, 오픈스페이스, 대통령 관저 및 국가기관(행정·입법·사법부) 등 건설비용 포함

〈그림 4〉 인도네시아 현수도 및 신행정수도 후보지역 현황



출처: 저자 작성.

1)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내부자료 참고해 작성.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 특별법 입법 전망

인도네시아 정부·의회 현황

📍 공화국(대통령 중심제, 5년 중임제) 정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하원 575명과 상원 136명으로 구성

*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협의회 711명이 총괄 기구로 기능

📍 주요 정당으로 집권당(투쟁민주당Partai Demokrasi Indonesia Perjuangan, 골카르당Partai Golongan Karya 등 5개 정당연합)과 제1야당인 그린드라당(partai gerindra) 등 4개로 구성

3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자금조달계획 제언²⁾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 투자 및 토지이용 계획 수립 필요

신행정수도의 자금조달은 목표인구와 건설규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 수립

📍 행정, 입법 및 사법의 중심지가 되는 신행정수도는 주 기능과 지원기능의 규모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인구와 규모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자원조달방안을 마련

📍 신행정수도 자금조달계획은 두 가지 경우로 제시

- (시나리오 1) 목표인구 150만 명, 건설규모 4만ha

- (시나리오 2) 목표인구 87만 명, 건설규모 3만ha

📍 건설비용은 인구 및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약 39조 원으로 추산

〈표1〉 신행정수도 자금조달계획

(단위: 루피아)

구분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1	주요 기능	65조 4천억	38조 3천억
2	지원 기능	243조 5천억	163조 9천억
3		149조 2천억	114조 8천억
4		8조	6조
계		466조(329억 달러)	323조(228억 달러)

주: 국가자본 이동 관련 기타비용 제외, 건설 기간 동안의 정부 운영·전환 기간 동안의 정부 운영비용.

2)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내부자료 참고해 작성.

신행정수도 자금조달계획(안) 예시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의 약 80% 이상은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민간투자가 주요 원천이 될 것으로 전망

- 주정부에서는 이전 토지를 확보하면 기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 대통령 관저, 군 및 경찰 시설을 설치하는 등 19.2%의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 민간에서는 공공주택 및 고등 교육기관, 테크노파크, 공항, 항구, 유료 도로, 쇼핑몰,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시설 등 26.4%의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 행정·입법·사법부 건물 및 주요 인프라 시설, 교육·보건 시설, 박물관 등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s: PPP)을 통해 54.4%의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그림 5〉 신행정수도 자금조달계획

주정부	민간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19.2%(89.4T)	26.4%(129.2T)	54.4%(253.4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서비스 인프라 대통령 관저 군 및 경찰 전략시설 공무원, 군, 경찰 등 청사 토지 확보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주택 고등 교육기관 테크노파크 공항, 항구, 유료 도로 쇼핑몰 MICE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 입법, 사법부 건물 주요 인프라(주정부에서 다루지 않는 인프라) 교육 및 보건 시설 박물관 서비스 지원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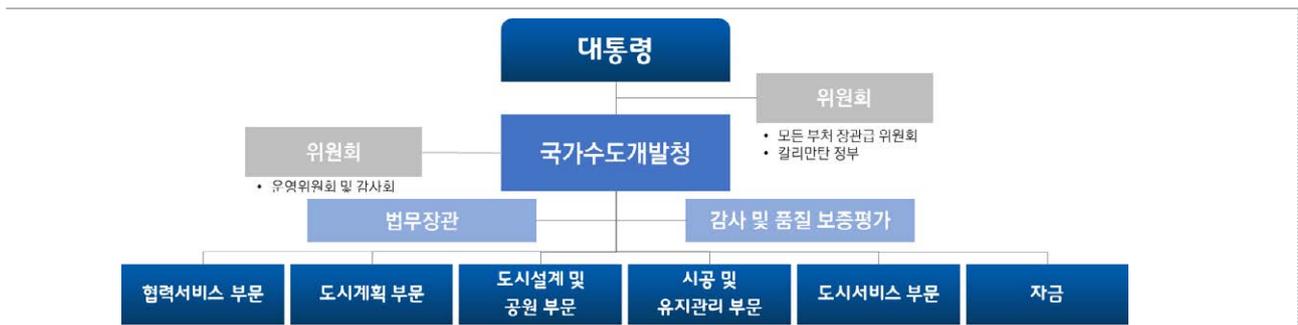
주: T는 조(trillion)이며, 단위는 인도네시아 루피아(IDR)임. 원으로 환원하면 주정부 7조 8,000억, 민간 11조 2,791억, PPP 22조 1,218억.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내부자료.

신행정수도 자금조달계획을 위한 제도적 개편 제안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국가수도개발청 설립 필요

- 대통령 직속의 국가수도개발청 설립이 필요한데, 이 기관은 PPP 협업체계를 통한 신규자본 투자와 자금 관리를 수행하며, 신행정수도 민간부문과의 협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중점 수행
- 자카르타의 정부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을 관리하고, 새로운 수도 건설지역에 투자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등 새로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제반사항을 수행

〈그림 6〉 대통령 직속 국가수도개발청 조직(안)



출처: BAPPENAS 2019.

4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효과³⁾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가 균형발전 촉진

국토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지역 간 거래 증가 등 지역 간 불균형 감소

- ④ 인도네시아 영토의 50% 이상, 타 지역과의 무역 흐름 증가 전망
- ④ 자바섬 외곽으로 수도 이전 시, 인도네시아의 자바섬과 주변 지역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지역 간 무역이 성장하고 장려될 것으로 전망

신행정수도 및 주변 지역의 투자효과 증가

칼리만탄으로 수도 이전 시, 신행정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 증가

- ④ 자바섬 외곽으로 이전한 신도시는 주변 지역의 투자를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
- ④ 또한 신행정수도가 입지하는 칼리만탄은 정부 이전과 함께 통신·호텔·무역·금융·교육 등 서비스 부문 제반 시설들이 동시에 투자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

국가 경제성장을 상승

새로운 자본개발 투자로 국가 경제성장의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기대

- ④ 신행정수도 개발로 인한 건설경제 활성화로 국가 경제성장 0.1~0.2% 증가 예상
- ④ 자본 집약적 소득 증가(0.23%)보다 노동집약적 부문 소득 증가(1.37%)로 인해 소득격차 감소 전망
- ④ 인도네시아 신행정수도 및 주변 지역의 대량 투자로 인해 경제성장 및 신남방 국가의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 작용 가능성 농후

5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을 활용한 협력방안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인도네시아 당국의 과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제반사항 및 준비과제

- ④ 도시설계의 세부 요소, 도시 구조와 토지이용의 배열·패턴에 대한 계획수립
- ④ 인프라 및 정부청사, 대통령 관저, 직원주택 및 상업지역, 기타 공공시설 건설

3) BAPPENAS 2019의 자료를 참고해 작성

- 📍 도시기반시설 및 인프라 구축과정의 조정·조율, 건물 및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유지
- 📍 경제 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지방의 전통·비전통 분야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ASCN(ASEAN Smart Cities Network)정책을 활용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과 스마트시티의 강점 등을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

- 📍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ASCN(ASEAN Smart Cities Network)* 정책과 연계하여 국가 간(G2G)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협력사업 등을 마련
 - * 아세안 10개국 정부가 선정한 26개 도시를 대상으로 아세안 외 국가를 1:1로 매칭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지원하는 협력체계
- 📍 ASCN 연구 과정에서 주요하게 도출됐던 스마트시티 사업 메뉴판 등을 활용하여 사업내용 및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스마트시티 사업 메뉴판은 지속적으로 내용을 발전시켜 협력사업 도출에 활용되도록 유도

(그림 7) 스마트시티 사업 메뉴판(안)

<p>방법/방재 (Security)</p> <p>사물인터넷(IoT) 플랫폼 활용 사고현장 실시간 대응지원 서비스</p> <p>서비스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직원이 착용한 IoT 센서를 통해 공사 및 사고현장 내 영상, 음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p>구축 단가: IoT 플랫폼 1,400,000원/개 (LG U+ 기준) (연제 및 대안 비용 별도)</p>	<p>의료/보건 (Healthcare)</p> <p>독거노인 실버 케어 서비스</p> <p>서비스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위치 기반의 감지형 생체정보 측정센서를 적용한 주민 건강관리 및 고독사 사전예방 시스템 <p>구축 단가: 서비스소요 예산 기준 총 20,200천 원 (센서 및 기기 개발 9,000천 원 등)</p>	<p>교통 (Mobility)</p> <p>불법주차 안내 서비스</p> <p>서비스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IoT 센서를 설치해 불법주차로 인한 시야가림 및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 민제하여 단속을 시행 <p>구축 단가: 10 백만 원/개소</p>	<p>에너지 (Energy)</p> <p>제로에너지 주택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p> <p>서비스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성능 단열 및 기밀, 창호 등의 자재와 열 회수 환기장치 등을 사용해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태양전지 판 및 지열 히트펌프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적용 <p>구축 단가: 노원구사원비 총 442억 원 (건축비 202억, 연구개발비 240억) (17,662㎡ 기준)</p>
<p>물관리 (Water)</p> <p>상수도 스마트 미터링 서비스</p> <p>서비스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기에 디지털 미터링 설치 후, IoT 기술 활용으로 실시간 상수도 사용량 확인 <p>구축 단가: 구축비 21만 원/수전, 운영비 월 1,360원/수용가</p>	<p>쓰레기 처리 (Waste)</p> <p>인공지능 객체인식 기반 대형 폐기물 처리 서비스</p> <p>서비스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사) 객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폐기물 배출을 인식, 수수료 부과 및 결제, 수거 등을 모바일로 자동 지원하는 서비스 <p>구축 단가: 은행구형 7년 서비스 구축비용 총 1,180 백만 원 (17년 600백만 원, 18년 580백만 원)</p>	<p>전자정부 (Economic development / Housing)</p> <p>디지털 세금 신고 서비스</p> <p>서비스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서비스 시스템 <p>구축 단가: 초기 사업비 약 137억 8천만 원 (2001.11~2003.05 기준)</p>	<p>시민참여/커뮤니티 (Engagement / community)</p> <p>스마트 민원 관리 시스템</p> <p>서비스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시설물 대상으로 유관관리 부서가 병행한 시설물 관리로 민원 처리를 연계하며, 시설물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상태, 문제 등의 민원을 접수 <p>구축 단가: 수원시 도로조성시설 40,283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시설물 부착비용 총 4억 4천만 원(약 11천 명/개)</p>

출처: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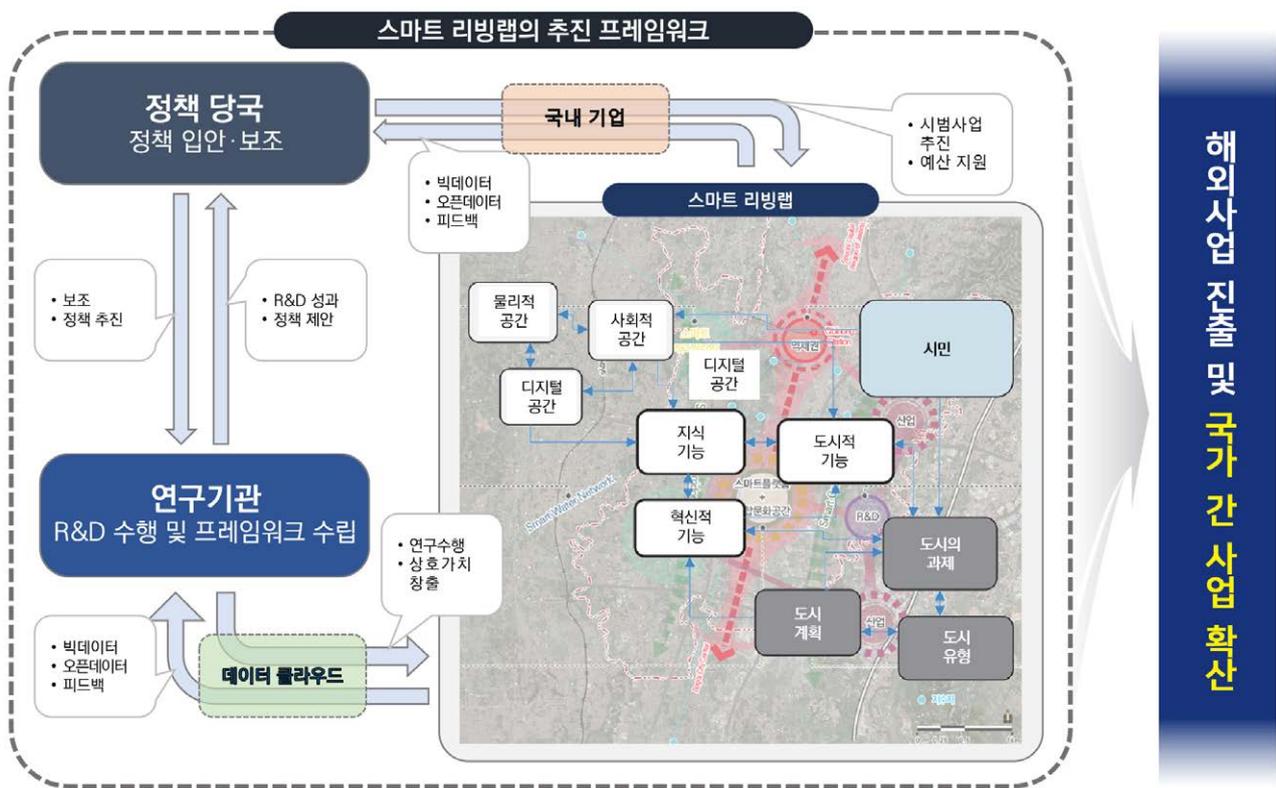
- 📍 특히 한국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등 경험에서 얻은 각종 법·제도적인 노하우와 건설과정에서 얻은 계획수립 절차 내용 등을 공유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신행정수도정책을 마련

혁신형 모델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사업추진체계 마련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相生)할 수 있는 민관협력사업 모델체계 마련

- ④ 민관협력사업의 형태로 원조기관(국가)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고 주주단에 포함되어 재원을 조달하고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별목적회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
- ④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간의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를 구축하고 해당사업에 적합한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유도
- ④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연동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종 데이터 등이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현지주민과 함께 리빙랩(Living Lab)을 구축하는 등 사업추진체계 마련

〈그림 8〉 리빙랩을 활용한 민관협력과 데이터 확보방안



출처: 저자 작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위한 국제기구 정책 활용, 원조자금 등을 활용한 자원조달방안 마련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동투자지원 아래 각종 자원조달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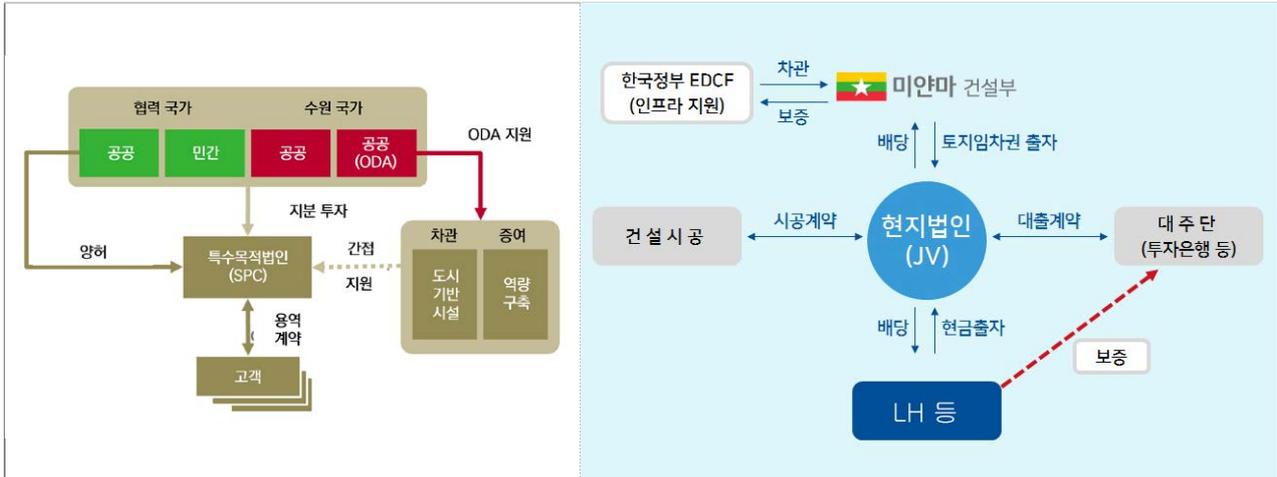
- ④ UN 등 산하기구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 지식들이 교류하면서 실행정수도 개발에 관한 협력 체계를 마련

📍 양국 간의 G2G*, PPP** 등 다양한 차원에서 자원조달체계를 마련하고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및 관련 다자개발은행(MDB) 자원조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 G2G는 정부 간 수출계약을 의미하며 계약의 주체가 민간이나 개인이 아닌 정부가 되는 사업방식

** 민간협력사업을 의미하며 정부 기관과 투자자 또는 기업 간의 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업방식

〈그림 9〉 자원조달체계와 사업추진 사례(미얀마에서 구상 중인 사업)



출처: 김정곤·최인아 2019.

📖 참고문헌

국제신문. 2020. 인도네시아, 이전하는 새 수도 스마트 시티 건설 천명, 1월 14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00115.22014005207> (2020년 1월 14일 검색).

김정곤·최인아 외. 2020.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지원전략 수립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합뉴스. 2019. [일문일답] 조코위 대통령 “인니수도 이전, 韓기업 참여 가능”, 11월 22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131200104?input=1195m> (2020년 1월 14일 검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19. 내부자료.

Badan Pusat Statistik. <https://www.bps.go.id/linkTableDinamis/view/id/842> (2020년 1월 14일 검색).

BAPPENAS(Badan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 2019. Relocating the National Capital. 55th International ISOCARP Congress, 10 September. Jakarta: Hotel Borobudur Jakarta.

Priyambodho, B. A., Qin, C. and Ravesteijn, W. 2015. Under the wings of the Great Garuda: responsible port innovation in the Jakarta Bay area. WIT Transactions on The Built Environment, no.148: 51-62.

Septiana, D. and Sumarlam, S. 2018. Palangka Raya the Capital City of Indonesi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News about Moving the Capital City from Jakarta.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no.280: 190-202.

이범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hblee@krihs.re.kr, 044-960-0276)
강건국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kang4491@krihs.re.kr, 044-960-0268)
김유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yrkim@krihs.re.kr, 044-960-0177)